

보도자료

2011년 4월 25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융합정책관 방송통신진흥정책과 오용수 과장(☎750-2150)
방송통신진흥정책과 강동완 주무관(☎750-2151) iclark@kcc.go.kr**방통위, 방송작가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개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방송 콘텐츠의 기획과 구성을 담당하는 작가들의 창의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작가 대상 올해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4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방송의 품격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현업 방송작가 대상 재교육 사업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한국방송작가협회를 통해 수행해 왔다. 작년 한해 80명의 현업 방송작가(드라마·예능·라디오·구성다큐)들에게 방송언어의 현황과 문제점·방송언어와 저작권·방송작가의 사회적 특성·스토리텔링 등의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종편, 뉴미디어 시대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미디어 변화 맞춤 교육’, 스토리텔링 중심의 ‘창조력 증대 교육’, 방송 윤리 등의 ‘방송 실무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수료자 중 우수 교육생에게는 해외 우수 방송사 스토리텔링 실습 등의 국외 교육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문의는 한국전파진흥협회(☎ 02-317-6196)와 한국방송작가협회(☎ 02-786-1696, www.ktrwa.or.kr)에 문의하면 된다. 끝.